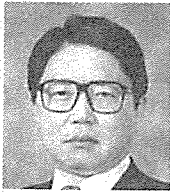


무서운 여행 전염병



이준상

고려의대 교수 · 대한기생충학회장

인류와 오랜 역사를 같이 해온 결핵, 말라리아, 콜레라, 이질, 인플루엔자 등은 끊임없이 알려지고 계속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인간은 오히려 후퇴된 감이 든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① 빈번해진 국제여행으로 인한 병원균의 전파, ② 항균제의 남용으로 인한 세균의 내성 증가, ③ 전쟁, 빈곤, 인구밀집 등으로 인한 빈약한 위생시설, ④ 인간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병원균의 새로운 전파경로 등을 들 수 있다.

1. 에이즈(AIDS)

WHO에 보고된 에이즈 환자수는 95년 1월 13일 현재로 1백2만5천73명이며, 이는 93년 6월 30일의 71만8천8백94명보다 30만명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이 통계 결과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가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고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다.

WHO에서는 에이즈 환자수가 3백만명 이상이 될 것이며, 이중 80%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HIV 감염자 수에 대한 통계는 더욱 부정확하며 70년도 후반기나 80년도 초반기부터 지금까지(94년말) 모두 1천5백만이 감염되었으며, 이중 약 1백50만명이 소아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94년말 현재로 생존하고 있는 감염자수는 1천3백만명 가량이며 이중 8백만명이 이하라사막 남아프리카에, 2백50만명이 인도

와 동남아시아, 1백만이 남미에 그리고 75만명이 북미에 분포되어 있다.

'93년 중반기에서 '94년말 사이에 HIV 감염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이며 1년반 사이에 약 1백만명 이상이 새로 감염되었다. 앞으로 HIV 감염은 계속되는 추세로써 2천년까지는 3천만명 내지 4천만명이 될 것이며 그중 1천만명이 에이즈로 발전할 것으로 추측된다. 역사는 20세기 후반을 두창의 근절이란 위대한 의학적 개가와 동시에 에이즈란 대비극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2.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열대지방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 보건문제이며 약 2억에서 3억명의 환자가 있으며 매년 1백만명 내지 2백만명의 환자가 사망한다. 국외여행이 잦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가 가끔 보고되고

있다. 말라리아의 근절은 상당한 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 이유로는 ① 말라리아균의 약물내성의 증가, ② 말라리아에 대한 면역기전 불투명, ③ 말라리아 모기의 소독제에 대한 내성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3. 에볼라 바이러스

1995년 3월 아프리카 차이르의 키크워드 지방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기 시작해 5월 15일까지 77명의 사망자를 낸 에볼라 바이러스가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질병은 아직 자연숙주가 밝혀지지 않아, 괴질로 불리고 있으며 따라서 예방이나 치료대책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한 미국작가 로빈 쿡의 「바이러스」란 소설의 바이러스도 바로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로부터 옮겨지는 2차 감염은 일단 접촉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류의 오랜 역사와 같이 해 온 결핵·말라리아·콜레라 이질·인플루엔자 등은 끊임 줄 모르고 계속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인간은 오히려 후퇴한 감이 든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감기 바이러스처럼 공기로 전염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이 질병의 증상은 고열과 근육통, 탈수 및 장기나 피하출혈이 있는데 유행성 출혈열과 비슷해 아프리카유행성출혈열이라 부르기도 한다. 병세는 유행성출혈열보다 훨씬 심해 감염자의 50~90%가 단시일 안에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질병의 전염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명칭은 이 질병이 발생하는 자이르의 에볼라라는 강의 이름을 딴 것이며, 발견자는 1967년 독일의 미생물학자인 마버그 박사였다. 이 질환은 1976년 자이르북부지역과 수단·남부지역에서 무려 620명이 발병해 4백20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바이러스의 형태는 길다란 섬유모양

을 하고 있는데 직경은 80 μ m(1 μ m은 10억분의 1m), 길이는 7백~1천4백 μ m 정도이며, Y, 6, 뿔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바이러스의 자연숙주가 원숭이류나 설치류가 아닌가 보고 있어 위험지역을 여행할 때는 1차 감염원일 가능성이 있는 이들 매개체와 환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주요 전염병 이외에도 호흡기감염(연간 사망자 4백30만명), 설사질환(3백2만명), B형감염(1백만명 내지 2백만명), 홍역(80만명), 백일해(36만명) 등 많은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인류의 복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의학적 수단으로서만 해결될 수 없으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공동전선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여행인구가 급격



아직까지도 인류의 복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전염병의 문제는 의학적 수단으로서만 해결될 수 없으며,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공동전선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여행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 풍토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여행객 및 출장자들을 진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구인 여행의학클리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된다.**

히 증가하면서 외국 풍토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객 및 출장자들을 진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구인 여행의학클리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삼성의료원에 개설된다.

삼성의료원은 해외여행객과 출장자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부터 귀국 후까지 완벽한 예방진료를 실시하기 위한 여행의학클리닉을 오는 7월중에 개설한다고 밝혔는데 여행의학클리닉의 개설은 해외풍토병의 수입방지 및 연구는 물론 해외여행자 증가에 따른 외국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추진 중인 여행의학클리닉은 여행이나 출장을 준비중인 사람이 여행 4~5주전 예약후 병원을 방문하면 건강진단을 통해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건강증명서와 여행대상국의 현지 풍토병에 대한 예방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특별히 제작한 여행용 의료약품

셋트를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여행지역의 질병분포와 주의사항,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긴급연락처 등과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질병감염률이 높은 동남아·아프리카 지역을 찾는 여행객 수가 크게 증가, '93년에는 약 2백40만명에서 '94년엔 3백15만명으로 감염환자 발생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기구인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삼성의료원은 여행의학클리닉 설치에 앞서 여행의학클리닉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현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대학 여행의학클리닉 등 선진클리닉과 미국여행자건강협회·미국풍토병학회 등과의 교류를 가질 방침이다. 62